

요한계시록에서의 요엘서 사용

김경식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초록

본 논문은 요한계시록에서 사용되고 있는 요엘서에 대한 연구이다. 본 소고는 요한계시록에서의 요엘서 사용에 관한 기존의 학적 노력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 요엘서의 요한계시록에서의 사용을 좀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려고 시도했다. 본 논문은 신약에서의 구약 암시적 사용을 판단하는 기준을 방법론으로 삼아, 한편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사용되는 요엘서가 단순히 요한계시록에서 구약의 문맥과 원래 의미를 떠나 변용되어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요엘서의 문맥과 의미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음을 논증한다. 또한 요엘서의 중요한 주제인 회개의 촉구와 회개의 거부로 인한 멸망이라는 주제가 요한계시록에서 저자가 요엘서를 사용하는 의도임을 논증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요한계시록의 네 본문들에서 요엘서가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증명하고 난후, 각 단락에서의 요엘서 해석과 사용의도를 분석했다.

주제어

요한계시록, 요엘, 회개 촉구, 여호와의 날

I. 서론

요한계시록은 다양한 구약 본문들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구약 선지서들이 요한계시록의 상징과 이미지들을 구성하는 근간이 된다는 데는 학자들 간에 어느 정도 의견일치가 되고 있다. 요한계시록에서 사용되는 이사야서, 다니엘서, 에스겔서, 스가랴서 등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 이러한 요한계시록에서의 선지서 사용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엘서가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깊이 있게 연구한 논문은 많지 않다. 다행히도 요엘서가 신약성경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연구한 논문이 스트라찌치(J. Strazicich)에 의해 깊이 있게 분석된 적이 있다.¹⁾ 또한 구약 소선지서들이 신약에서 사용되는 현상을 분석하는 가운데 요한계시록에서의 요엘서 사용을 다룬 야우히아인(M. Jauhiainen)의 소논문이 있다.²⁾

본 논문은 요한계시록에서 사용되는 요엘서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앞서 언급한 두 연구와 공통분모가 있지만, 몇 가지 점에서 이들의 한계를 넘어서는 분석을 하고자 한다. 첫째, 스트라찌치는 요한계시록에서 요엘서가 때로는 요엘서의 문맥과는 관계없는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어 사용된다고 주장했다.³⁾ 이에 대해 과연 계시록

1) John Strazicich, "Joel's Use of Scripture and the Scripture's Use of Joel: A Study in the Appropriation and Resignification of Scripture in Second Temple Judaism and Early Christianity," (Ph.D.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4)

2) Marko Jauhiainen, "The Minor Prophets in Revelation," in Maarten J. J. Menken and Steve Moyise (eds.), *The Minor Prophets in the New Testament* (New York: T&T Clark, 2009).

3) Strazicich, 앞의 논문(2004), 578. 그는 다음과 같이 결론적으로 주장한다

의 저자가 요엘서의 문맥을 완전히 무시하고 신학적 논증을 뒷받침하기 위해 새로운 의미를 요엘서에 부여하는 정도의 전용을 하고 있는지를 살피게 될 것이다. 둘째, 야우히아이넨의 연구는 소선지서들 전체를 요한계시록에서 사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논문이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의 요엘서 사용 자체에 대한 집중적인 토의가 결여되어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앞서 언급한 연구들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적 접근을 시도하려는 것이며, 따라서 요한계시록에서의 요엘서 사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하려고 한다. 무엇보다 요엘서가 요한계시록 본문에 사용되면서 어떤 신학적 의도를 가지고 사용되었는지를 분석하고, 요엘서 사용 본문연구가 요한계시록 해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요한계시록은 구약본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방식으로 구약을 사용하고 있다.⁴⁾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 실제로 요엘서가 암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먼저 증명하고, 그 후 요한계시록에서의 요엘서 해석과 사용 의도를 다루는 방식을 취하게 될 것이다.⁵⁾

“This work has shown that the use of allusion in both Joel and the New Testament’s use of Joel functions *solely* as a means by which the author gave new meaning to old traditions. It is a work of resignifying scripture so that it can speak in new ways to the community.” (이텔릭체는 Strazicich의 강조이고, 밑줄은 필자의 강조이다). 이 논문은 Brill에서 단행본으로 2007년에 출판이 되었지만, 국내에서 이 책을 구할 수 없는 관계로 그의 박사학위논문을 가지고 논의를 진행하려고 한다.

- 4) Kyoung-Shik Kim, *God will Judge Each One According to Works: Judgment According to Works and Psalm 62 in Early Judaism and the New Testament* (BZNW 178; Berlin: de Gruyter, 2010), 220; Steve Moyise, “The Psalms in the Book of Revelation,” in Steve Moyise (ed.), *The Psalms in the New Testament* (London; New York: T&T Clark, 2004), 231
- 5) 신약성경에서의 구약성경의 암시적 사용(allusion)을 판단하는 기준은 필자

II. 요한계시록에서의 요엘서 사용

요한계시록에서 요엘서의 본문은 인 재앙 시리즈(계 6장), 나팔 재앙 시리즈(계 9장), 포도송이 추수 심판(계 14장), 그리고 대접 재앙 시리즈(계 16장)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 각각의 본문을 차례로 분석해 보겠다.

1. 여섯째 인 재앙(계 6:12-17)

요한은 일곱 인 재앙시리즈를 묘사하면서 다양한 구약 본문들을 사용한다. 일곱인 재앙 가운데 첫 번째 네 가지 색깔의 말들 환상은 스가랴 1장과 6:1-3에서 온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이다. 또한 넷째 인과 관련된 재앙인 청황색 말을 탄자인 사망과 그를 뒤따르는 음부가 권세를 받아 행하는 재앙의 내용은 겔과 홍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써 죽이는 환상(8절)은 겔 5:12, 17에서 온 이미지들이다. 여섯째 인 재앙과 관련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 그리고 모든 종들과 자유인들이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자신들 위에 떨어져 자기들을 하나님과 어린양의 진노로부터 가려달라는 호소는 호 10:8 그리고 사 2:10, 19, 21에서 가져온 이미지들이다. 요한은 일곱 인 재앙시리즈를 묘사하기 위해서 이렇듯 스가랴, 에스겔, 호세아와 이사야의 본문들을 가져다 사용한다.

이 구약본문들 중에 요엘서가 사용되었다는 것은 첫 눈에 보기에 는 그렇게 두드러져 보이지 않는다. 요엘서의 암시적 사용은 이 단

가 다음의 출처에서 논의한 부분을 참고하기 바란다. Kyoung-Shik Kim, 앞의 책(2010), 34-7. 암시적 사용을 판단하는 기준은 (1) 문자적 유사성, (2) 반복적 사용 (3) 주제적 유사성 (4) 개념적 유사성 (5) 저자의 의도 등이다.

락에서의 요엘서의 사용에 대해 학자들로 하여금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게 하거나, 이 단락의 구약적 배경 가운데 하나 정도로만 보게 만들었다.⁶⁾ 하지만, 자세히 요한계시록 본문을 살펴보면 요한은 여섯째 인 재앙의 내용을 묘사하는 가운데 요엘서 본문들을 아주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감지하게 된다. 여섯째 인 재앙은 세상종말에 관한 심판인데 요한은 세상종말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의도적으로 요엘서의 본문에 호소하고 있다.

가. 피같이 변하는 달(12절)

요한은 여섯째 인을 떼고 난 후의 자연과 관련된 재앙을 자세히 12-14절까지에서 묘사한다. 그 내용은 지진, 해와 달의 변화, 별들이 떨어짐, 하늘과 산과 섬들이 사라짐이다. 이러한 자연재앙과 관련해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요엘서를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는 달이 온통 피같이 되는 현상을 묘사하는 대목에서이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에 임하실 때 일어나는 다양한 자연현상을 묘사하는 본문들이 있다. 하지만, 달이 피처럼 변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본문은 요엘서뿐이다.⁷⁾ 욥 3:4에 의하면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는 묘사를 하고 있다. 분명히 욥 3:4와 계 6:12 사이에 매우 독특한 문자적 유사성이 존재한다.

계 6:12 Kai. ei=don o[te h:ñoixen th.n sfragi/da th.n e[kthn(kai. seismoj me,gaj evge,neto kai. o` h[lío]j evge,neto me,laj w`j sa,kkoj tri,cinoj kai. h`selh,nh o[lh evge,neto w`j ai-ma

6) G. K. Beale · Sean M. McDonough, “Revelation,” in G. K. Beale · D. A. Carson (eds.),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Use of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Baker, 2007), 1104-1105.

7) Marko Jauhiainen, 앞의 논문(2009), 163.

을 3:4 o` h[lioj metastrafh, setai eivj sko, toj kai. h` selh, nh eivj ai-ma
pri.n evlqei/n h` me, ran kuri, ou th.n mega, lhn kai. evpifanh/

해가 피같이 변한다는 표현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에도 등장한다(행 2:16-21, 특히 20절). 그리고 잘 알려진 대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는 요엘서 3장의 본문을 직접 인용하는 본문이기도 하다. 사도행전에 반영된 요엘서의 해석은 초대교회에서 요엘서를 종말론적으로 해석하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요한계시록의 저자도 이러한 종말론적 해석의 틀 안에서 있지만, 현재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현된 종말론적 관점인 사도행전의 해석이 아니라, 미래 종말론적 관점에서 요엘서 본문을 사용하고 있다.

물론, 요한은 여섯째 인과 관련된 재앙을 묘사하면서 요엘서에만 의존하지 않고 이사야서에도 호소한다. 우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는 현상(12절)에 관한 묘사는 사 50:3에만 나오는 표현이다. 계 6:12의 해가 어둡게 되는 현상과 사 50:3의 하늘이 흑암으로 덮이고, 붉은 베로 덮이는 것과 같은 현상과 개념적으로 흡사하다. 더욱이 구약에서 오직 사 50:3에만 하늘과 상복이라는 두 단어가 함께 나타나는데 이러한 독특한 문자적 유사성은 계 6:12에서 사 50:3이 사용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또한 계 6:14의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라는 표현도 사 34:4에 나오는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라는 표현과 개념적으로 매우 흡사하다.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며 사라지는 현상을 묘사하는 이사야 34장과 요한계시록 6장의 두 본문은 흥미롭게도 하늘이 사라지는 현상을 두루마리에 비유하는데 신구약성경을 통틀어 하늘이라는 단어와 두루마리라는 단어가 함께 나오는 본문은 이 두 본문들뿐이라는 독특성 또한 요한이 계 6:14에서 사 34:4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러나 우리가 요엘서의 사용과 관련하여 주목해 볼 내용은 욥 2:10에 계 6:12-13에 묘사된 현상들의 대부분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욥 2:10 pro. prosw,pou auvtw/n sugcuqh,setai h` gh/ kai. seisqh,setai o` ouvrano,j o` h[lío] kai. h` selh,nh suskota,sousin kai. ta. a:stra du,sousin to. fe,ggoj auvtw/n

계 6:12-13 kai. ei=don o[te h:noxen th.n sfragi/da th.n e[kthn(kai. seismo,j me,gaj evge,neto kai. o` h[lío] evge,neto me,laj w`j sa,kkoj tri,cinoj kai. h` selh,nh o[lh evge,neto w`j ai-ma kai. oi` avste,rej tou/ ouvranoj/ e:pesan eivj thn gh/(w`j suk/ ballei touj ovlunqouj auvthj u` po. avne,mou mega,lou seiome,nh(

계 6:12-13에 등장하는 4가지 현상인 지진(seismo,j), 검게 변하는 해(o` h[lío]), 피갈이 변하는 달(h` selh,nh), 땅에 떨어지는 별들(oi` avste,rej)의 종말론적 자연현상은 욥 2:10에 나오는 땅의 진동, 해와 달이 캄캄해짐, 별들이 빛을 거둠에 관한 설명과 볼 때, 지진에 대한 언급, 그리고 해, 달, 별들이 언급되는 순서가 일치한다. 이러한 점은 심지어 우주적 혼동을 설명하는 계 6:12-13이 욥 2:10의 본문에 근거하고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높여준다.

결국, 계 6:12-14에 묘사된 종말론적 자연현상은 이사야서와 요엘서에 기반을 둔 묘사이다. 사 50:3의 문맥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불신을 책망하는 내용이다. 반면에 사 34:4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던 열국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은 무슨 의도로 요엘서를 여섯째 인 재앙을 묘사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가? 요엘서의 사용 의도를 파악하려면 여섯째 인 재앙에 사용되고 있는 다른 요엘서 본문들을 더 살펴야만 그 해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달이 피같이 변하는 현상과 더불어 또 다른 요엘서 본문이 여섯째 인 재앙 심판의 묘사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나. 그들의 진노의 큰 날(17절 상)

요한은 여섯째 인 재앙으로 묘사된 최후 심판의 날을 가리켜 ‘그들의 진노의 큰 날’(h` h`me,ra h` mega,lh thj ovrg'hj auvtw/n)이라고 부른다. “그들”은 문맥상 보좌에 앉으신 이와 그의 어린양을 의미한다. 요엘서 사용과 관련해 주목해 볼 표현은 ‘진노의 큰 날’이라는 대목이다. 구약에 종말론적 문맥에서 언급되는 ‘여호와와 그의 큰 날’이라는 표현은 슥 1:14, 그리고 말 3:22(=한글성경, 4:5)에 등장한다.⁸⁾ 요엘서에서는 ‘여호와와 그의 날’(h`me,ra kuri,ou), 그리고 그와 유사한 표현인 ‘그 날’(h`me,raij evkei,naij)이 반복적으로 언급된다(1:15; 2:1, 11; 3:4; 4:1,14,18). 이 중에서 요한계시록과 관련이 있는 ‘여호와와 그의 큰 날’이라는 표현이 두 번 등장한다(2:11; 3:4).

을 2:11 kai. ku,rioj dw,sei fwnh.n auvtou/ pro. pros,w,pou duna,mewj auvtou/ o[ti pollh, evstin sfo,dra h` parembolh. auvtou/ o[ti ivscura. e:rga lo,gwn auvtou/ dio,ti mega,lh h` h`me,ra tou/ kuri,ou mega,lh kai. evpifanh,j sfo,dra kai. ti,j e:stai i`kano,j auvth/|

을 3:4 o` h[lloj metastrafh,setai eivj sko,toj kai. h` selh,nh eivj ai-ma pri.n evlqei/n h`me,ran kuri,ou th.n mega,lhn kai. evpifanh/

8) 참고, James D. Nogalski, “The Day(s) of YHWH in the Book of the Twelve,” in Paul L. Redditt·Aaron Schart (eds.), *Thematic Threads in the Book of the Twelve* (BZAW 325; Berlin: de Gruyter, 2003), 202.

두 번에 걸친 여호와의 큰 날이라는 언급은 계 6:17의 ‘그들의 진노의 큰 날’과 문자적 유사성뿐만 아니라 종말론적 문맥이라는 점에서도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물론 요엘서의 여호와의 큰 날이라는 표현과 ‘그들의 진노의 큰 날’(계 6:17)이라는 구절의 차이는 요한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사상을 이미 기독교론적으로 확대 해석해 그들의 날 즉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양의 날로 발전시켰음을 보여준다.

우리가 여기서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은 앞서 지적한대로 “여호와의 큰 날”이라는 표현 혹은 사상이 스바냐서와 말라기에도 등장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요엘서로부터 여호와의 큰 날 사상을 가져다 사용한다고 확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반론에 대해 세 가지 점을 들어 반박할 수 있다. 첫째, ‘달이 온통 피같이 변한다’는 표현은 오직 요엘서에서만 등장하는 본문이라고 이미 앞서 지적했다. 둘째, 계 6:17b에 등장하는 “누가 능히 서리요”라는 질문은 욥 2:11에 나오는 질문인 “누가 당할 자인가”와 매우 유사하다.⁹⁾ 다시 말해, 욥 2:11과 계 6:17 두 본문 다 여호와의 진노의 큰 날에 대해 언급하면서 동시에 질문형식을 통해 누가 이 여호와의 진노의 날을 견뎌낼 것인가 라는 놀라움을 표시하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대접재앙에서 논증하겠지만, 여호와의 큰 날과 ‘전쟁을 위해 사람들을 소집함’이라는 개념이 동시에 등장하는 본문은 요엘서뿐이다. ‘여호와의 큰 날’이 등장하는 스바냐서나, 말라기서 본문이 있지만, 여섯째 대접재앙에서 여호와의 큰 날이 요엘서에 근거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섯째 인 재앙에 언급된 여호와의 큰 날도 요엘서에서 왔음이 확실하다.

9) Strazicich, 앞의 논문(2004), 511-512.

이러한 사실은 계 6:17에 언급된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요엘서에 근거한 내용임을 뒷받침해 준다. 이제 또 하나 해결해야 할 것은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요엘서에 나오는 2번에 걸친 ‘여호와의 큰 날’을 종합적으로 암시하고 있는가 아니면 욥 2:11과 욥 3:4 두 본문 가운데 어느 특정 본문을 사용하고 있는가하는 점이다. 요한은 욥 3:4의 본문보다는 욥 2:11의 본문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분명해 보인다. 왜냐하면, 앞서 지적한 대로 욥 2:11에 여호와의 큰 날이라는 표현과 결합되어 나오는 이 날을 “누가 능히 당하리요”라는 질문형식이 계 6:17에서 비슷하게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요약하자면, 여섯째 인의 재앙/심판 내용을 묘사하면서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종말론적 자연현상의 언급 중 ‘달이 온통 피처럼 변하는 현상’을 설명하면서 욥 2:10과 욥 3:4에 호소하고 있으며, 둘째, 여호와의 진노의 큰 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다시 한 번 저자는 욥 2:11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큰 날에 누가 감히 설 것인가라는 질문 형태는 욥 2:11의 본문을 사용하고 있다.

다. 여호와의 큰 날과 여섯째 인 재앙

지금까지의 논지가 사실이라면,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무슨 의도로 여섯째 인 재앙의 내용을 묘사하면서 요엘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한 대답은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여섯째 인 재앙의 내용을 요엘서의 여호와의 큰 날을 묘사하는 욥 2:10-11과 관련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욥 2:10-11이 포함된 요엘서 2장의 문맥은 하나님이 강한 백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심판한다는 내용이다. 이 강한 백성은 요엘서 1-2장의 문맥상 재앙을 불러오는 메뚜기를 나타낸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백성의 죄

를 심판하는 수단으로 메뚜기 재앙을 이스라엘 땅에 임하게 하신다. 요엘은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 오게 되는 여호와와 큰 날을 피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요구한다(을 2: 11-17). 요한계시록의 여섯째 인 재앙에서 사용되고 있는 을 2:10-11가 위치한 문맥인 2:12-17은 요엘서 전체의 전환점이 되는 본문이다.¹⁰⁾ 그 전 본문들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메뚜기 재앙이라는 수단을 통해 생생하게 설명되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재앙은 을 2:18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들로 바뀐다.¹¹⁾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시는 복으로 바뀌는 전환적 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이다. 을 2:12-17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다루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내용이 요엘서 내용의 전환점이 된다.¹²⁾ 흥미롭게도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여섯째 인 재앙에 관한 대목에서 을 2:10-11을 암시적으로 사용하면서 계 6:17에서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ti,j du,natai staqh/naiÈ)라고 질문을 던진다. 의미심장하게도 을 2:11에서도 여호와와 큰 날을 언급하는 마지막 대목에서 여호와와 큰 날을 ‘누가 능히 당하리요’(ti,j e;stai i` kano.j auvth/È)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던진 유사한 질문을 던진다.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하나님과 어린양의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설 수 있는가

10) Nogalski, 앞의 논문(2003), 201-202.

11) Douglas Stuart, *Hosea-Jonah* (Waco: Word, 1987), 257.

12) 을 2:18을 시작으로 그 전까지 설명되던 이스라엘백성들에 대한 심판은 더 이상 언급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지는 복들이 설명된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흡족하게 주심(2:19, 24), 이방이들 가운데서 더 이상 이스라엘백성이 욕을 당하지 않음(2:19), 그리고 이방 군대들이 이스라엘에서 쫓겨남(2:20) 등이 복의 내용으로 제시되고 있다.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의도적으로 욥 2:11의 질문을 연상시키고 있다. 그리고 욥 2:11에서 누가 능히 여호와와 큰 날을 당하리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욥 2:11의 바로 다음 구절들이며, 요엘서의 전환점인 욥 2:12-17에서 주어진다. 즉, 요엘서에 의하면, 여호와와 크고 두려운 날을 당할 자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다.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며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자만이 여호와와 날에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들이다.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여섯째 인의 내용을 묘사하면서 요엘서를 사용하는 이유가 회개의 촉구라는 주제에 있다. 스트라찌시크는 여섯째 인에서 요엘서가 사용된 것은 단지 3-4장에 나오는 묵시론적 여호와와 날이라는 개념뿐이며, 요한계시록의 신학적 목적을 위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만 보았다.¹³⁾ 그러나 그의 주장과는 달리 요한계시록 저자는 욥 2:11-17의 본문을 염두에 두면서 회개라는 주제를 끌어다 사용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회개의 주제가 요엘서 본문을 사용하면서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염두에 둔 점이라는 점은 앞으로 논증 되겠지만, 요엘서 본문이 사용되고 있는 다른 요한계시록 본문들인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의 본문에서 회개의 주제가 반복적으로 언급된다는 점에 의해 분명히 뒷받침된다.¹⁴⁾ 진노의 큰 날(계6:17)에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과 부자들, 강한 자, 그리고 종과 자유인들로 상징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이 진노의 큰 날에 아무도 심판을 피해할 수 없다. 반면에 이 심판의 날에 설 수 있는 자들로

13) Strazicich, 앞의 논문(2004), 512-513.

14) Jauhiainen, 앞의 논문(2009), 163. 그는 여섯째 인 재앙의 단락(특히 계 6:12)에서 욥 2:18-3:5가 사용된다고 보면서 회개에 대한 촉구가 요한계시록 저자의 요엘서 사용의도 중 하나라고 판단한다. 하지만, 그의 논문은 이 회개의 촉구 주제가 요엘서를 암시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다른 본문들에서도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보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

제시되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의 문맥상 7장에 등장하는 십사만 사천명(계 7:4-8)과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계 7:9-17)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 여섯째 인 재앙에서의 욥 2:10-11 사용이 암시하는 바는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 즉 회개하는 자들이 이 최후심판의 날(그들의 진노의 큰 날)에 능히 심판을 피하고 설 수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이다.

더 나아가 요한계시록 6장의 여섯째 인 재앙 에서 암시되고 있는 본문은 앞서 논증한 대로 욥 3:4-5(한글성경, 2:31-32)였다. 이 요엘서 본문은 달이 피처럼 변하는 내용과 여호와와 큰 날이라는 표현이 동시에 등장하는 본문이다. 이 요엘서의 본문은 여호와와 큰 날을 피할 자를 가리켜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밝힌다. 이 사람들은 “여호와와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고 달리 표현되고 있다(욥 3:5=한글성경, 2:32). 칠십인역은 욥 3:4-5의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구원받을 자들을 가리켜 ‘하나님이 불러서 복음을 듣게 한자’(kai. euvangelizo,menoi oulj ku,rioj proske,klhtai)라는 번역을 취하고 있다. 요한은 구원받을 자를 가리키는 이 구절을 그리스도인들과 결부시키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결국 요한의 여섯째 인에서의 요엘서 사용을 통해 십사만 사천 명과 셀 수 없는 많은 무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 계 7:3)이며, 또한 비록 지금 신앙을 타협하며 이세벨과 발람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 있는 자들도, 언제든지 진노의 큰 날이 이르기 전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 무리 속에 들어갈 수 있다고 암시하는 것이다.

2. 다섯째 나팔재앙에서의 요엘서 사용(계 9:1-11)

요한계시록의 세 가지 재앙시리즈 가운데 두 번째는 나팔재앙이

다. 이 재앙은 잘 알려진 대로 출애굽의 10재앙을 모델로 하고 있다.¹⁵⁾ 첫 번째 나팔재앙은 출애굽의 우박과 불 재앙, 두 번째 나팔재앙은 출애굽 재앙 중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 넷째 나팔재앙은 출애굽 재앙의 흑암재앙을 근거하고 있다. 요엘서의 사용과 관련해 주목해 보아야 할 대목은 다섯째 나팔재앙이다. 나팔재앙이 출애굽 10가지 재앙을 모델로 삼고 있다는 사실은 다섯째 나팔 재앙에 등장하는 황충 재앙도 출애굽 재앙 중 메뚜기 재앙을 기초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하지만, 더 자세히 보면 다섯째 나팔재앙인 황충 재앙이 요엘서에 나오는 황충 재앙의 본문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 진다.¹⁶⁾

가. 연기로 인한 어두움(계 9:2)

계 9:2에 의하면 나팔재앙을 수행하는 다섯째 천사가 무저갱을 열 때 연기가 무저갱으로 부터 올라오는데, 이 연기로 해와 공기가 어두워진다. 연기로 인해 해가 어두워지는 현상은 욥 3:3-4에 언급된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피와 불과 연기 기둥으로 이적을 베푸는데 그 결과 하늘이 어두워진다. 요엘서에 ‘연기’라는 단어와 ‘해’라는 단어가 동시에 사용되면서 종말론적 문맥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은 요한계시록의 다섯째 나팔재앙에서 나타나는 연기 때문에

15) G. K. Beale, *The Book of Revelation* (NIGTC; Grand Rapids: Eerdmans, 1999), 465-467. Beale은 나팔재앙 중 앞의 다섯 개 나팔재앙이 출애굽 10재앙을 모델로 삼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필찬, 『요한계시록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서울: 성서유니온, 2003), 114.

16) 요엘서의 황충 재앙은 출애굽 10재앙 중 메뚜기 재앙의 본문을 사용하며 암시하고 있다. 아마도 요한은 출애굽기의 황충 재앙을 묘사하면서 이를 보충하기 위해, 출애굽 황충 재앙을 확대시킨 요엘서 본문을 사용하는 듯 하다. 두 본문에는 황충을 가리키는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 Beale·McDonough, 앞의 논문(2009), 1114.

해가 어두워지는 현상과 매우 흡사하다. 특별히 주목할 점은 연기(kapno,j)와 해(h[lío])가 함께 등장하는 본문은 구약에서 유일하게 욥 3:3-4 본문뿐이라는 사실이다.¹⁷⁾

물론 해가 어두워진다는 표현은 미 3:6에도 사용되지만 연기로 인해 해가 어두워진다는 개념은 등장하지 않고 있다. 또한 미 3:6과 비슷하게 욥 2:10에도 해가 어두워진다는 표현이 등장하지만 연기로 인해 해가 어두워진다는 개념은 역시나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요엘서에 등장하는 연기로 인해 해가 어두워진다는 암시와 특히 연기와 해가 유일하게 결합되어 등장하는 단락이라는 점은 계 9:2에서 욥 3:3-4가 사용되고 있음을 입증해 준다.

나. 황충에 대한 묘사(계 9:7-11)

무저갱의 연기 가운데 땅으로 올라온 황충에 대한 묘사는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이 황충들에 대한 묘사를 요엘서에 나오는 황충의 묘사를 가져다 사용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첫째, 황충의 모양을 말과 같다고 묘사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욥 2:4 w`j o[rasi j i[ppwn h` o:yij aútw/n kai. w`j i`ppei/j ou[tw] katadiw,xontai

계 9:7 kai. ta. o`moi w,mata tw/n avkri,dwn o[moia i[ppoij h`toimasme,noij eiv] po,lemon(kai. evpi. taj kefalaj aútw/n w`j ste,fanoi o[moioi crusw/](kai.

17) Beale & McDonough, 앞의 논문(2009). 이들은 계 9:2에 출 10:15와 욥 2:2,10을 구약적 배경으로 설명하면서 메뚜기(황충)으로 인해 어두워지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욥 3:3-4를 그 구약적 배경이 되는 본문으로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Strazicich, 앞의 논문(2004), 526-527. 또한 욥 2:10(LXX)가 계 9:2에서 사용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것을 논증하지는 않는다. 그 역시 욥 3:3-4에 대한 논의를 계 9:2에서 하지 않는다.

ta. pro,swpa auvtw/n w`j pro,swpa avnqrw,pwn(

황충을 말에 비유하는 것은 구약에서 요엘서에만 등장하는 표현이다. 이러한 독특한 개념상의 유사성은 계 9:7에서 욥 2:4의 본문이 사용되고 있음을 뒷받침한다. 둘째로, 황충의 이빨을 묘사하면서 사자의 이빨과 같다고 표현하는 것 또한 요엘서가 이 단락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증거이다.

욥 1:6 o[ti e;qnoj avne,bh evpi. th.n gh/n mou ivscuro.n kai. avnari,qmhton oi`
ovdo,ntej auvtou/ ovdo,ntej le,ontoj kai. ai` mu,lai auvtou/ sku,mnou

‘A`n h` t`l`n w`h` a` y`n`i w`n`i p`n`i y`w` ~w`d` y`i>a`-f: h` y`a`-y`k` **욥 1:6**

계 9:8 kai. ei=con tri,caj w`j tri,caj gunaikw/n(kai. oi` ovdo,ntej auvtw/n
w`j leo,ntwn h=san

계 9:8과 욥 1:6 사이에는 “그들(황충)의 이빨” 그리고 “사자의 이빨”이라는 문자적 유사성이 존재한다. 그런데 시락서 21:2에는 흥미롭게도 계 9:8과 매우 흡사한 표현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다. 어떤 대상을 사자의 이빨과 같다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락서 21:2 w`j avpo. prosw,pou o:fewj feu/ge avpo. a`marti,aj eva.n gar
prose,lqh|j dh,xetai, se ovdo,ntej le,ontoj oi` ovdo,ntej auvth|j avnairou/ntej
yuca,j avnqrw,pwn

계 9:8 kai. ei=con tri,caj w`j tri,caj gunaikw/n(kai. oi` ovdo,ntej auvtw/n
w`j leo,ntwn h=san

위의 두 문장을 비교해 보면 이러한 문자적 유사성은 욥 1:6과 계 9:8 뿐만 아니라 시락서 21:2와 계 9:8 사이에서도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개념상의 유사성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차이점이 확실히 드러난다. 계 9:8과 욥 1:6에서는 황충의 이빨을 사자의 이빨에 비교하는 것이라면, 시락서 21:2는 죄의 파괴력을 사자의 이빨에 비교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러한 개념상의 차이는 시락서 21:2가 아니라 욥 1:6이 계 9:8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셋째, 황충 재앙을 묘사는 계 9:9와 욥 2:5 사이에 황충들이 움직이는 소리를 설명하는 대목에서 관련성이 존재한다.

욥 2:4-5 w`j o[rasi j i[ppwn h` o;yij auvtw/n kai. w`j i`ppeij ou[tw j katadiw,xontai w`j fwnh. a`rma,twn evpi. taj korufaj tw/n ovre,wn evxalou/ntai kai. w`j fwnh. flogoj puro,j katesqiou,shj kala,mhn kai. w`j lao,j polu,j kai. ivscuro,j paratasso,menoj eivj po,lemon

계 9:9 kai. ei=con qw,rakaj w`j qw,rakaj sidhrou/(kai. h` fwnh. tw/n pteru,gwn auvtw/n w`j fwnh. a`rma,twn i[ppwn pollw/n treco,ntwn eivj po,lemon

두 본문에서 황충들이 움직이면서 내는 소리를 병거가 달러가면서 만들어 내는 소리와 같다고 설명하는 내용이 서로 유사하다. 욥 2:5에서는 이스라엘에 임하는 황충 재앙을 청각적이면서 동시에 시각적인 면으로 묘사한다.¹⁸⁾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가운데 청각적인 측면을 가져와 황충의 위력을 설명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나팔재앙 가운데 다섯째 나팔재앙에 등장하는 황충 재앙의 묘사는 요엘서 1-2장에 등장하는 황충들에 대한

18) Douglas Stuart, *Hosea-Jonah* (WBC 31; Waco: Word, 1987).

묘사를 가져다 사용하는 것임이 분명해졌다.¹⁹⁾ 게다가 요한계시록에서 나팔재앙 가운데 황충 재앙이 등장한다는 사실도 이 재앙에 대한 요엘서의 영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욥 2:1과 2:15에 황충 재앙에 대한 묘사와 함께 등장하는 것이 나팔을 부는 동작이기 때문이다. 요엘서에서 나팔을 부는 동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주기 위한 행동으로 제시된다(욥 2:1). 욥 2:1과 2:15는 나팔을 불라는 명령으로 시작되는 문장으로 이 두 구절안의 단락을 감싸고 있는 인클루지오(*inclusio*)를 형성하고 있다.

요엘서 2장의 황충에 대한 묘사와 ‘나팔을 불어 경고하라’는 명령의 문맥은 요한계시록 9장에서 저자가 요엘서 2장을 끌어다 사용한 의도를 암시하고 있다. 즉 황충 재앙이 다가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성격과 이 심판을 피하기 위한 회개에로의 촉구, 성격을 동시에 가진 재앙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황충 재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땅에 거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들은 계 9:4에 의하면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들이 황충의 공격의 대상이 된다. 여기에서 요한계시록의 요엘서 사용은 단지 요엘서의 황충 재앙을 맹목적으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황충 재앙을 한층 발전시켜 나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요엘서에서 황충

19) Strazicich, 앞의 논문(2004), 527도 필자와 유사하게 요한계시록 9장의 이 단락에서 요엘서의 황충에 대한 묘사가 사용되었을 것으로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한다. 1) 황충을 말에 비유한다는 점, 2) 황충들이 전쟁을 위해서 대열을 갖추고 있다는 점, 3) 황충들의 이빨이 사자의 이빨과 같다고 비유한다는 점 4) 황충들이 내는 소리는 병거들이 내는 소리와 같다고 말한다는 점. Jauhainen, 앞의 논문(2009), 164는 요한계시록 9장의 황충 재앙 묘사와 요엘서를 연결하면서 욥 1:6의 황충의 이빨이 사자의 이빨과 같다는 점 둘째로 황충의 날개소리가 병거소리와 같다는 점이라고만 논증 없이 간략히 제시한다.

이 공격하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자연이었다(을 1:16). 하지만, 요한계시록에 오면 황충이 공격하는 대상은 더 이상 자연이 아니라 사람들이다(계 9:4).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요엘서의 황충 재앙에 관한 설명을 스크라찌시크의 논지대로 요한계시록의 신학적 목적과 논증을 위해 무작위로 변용하고 있는 것인가?²⁰⁾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이미 요엘서 문맥은 황충이 공격하는 대상이 자연을 넘어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그 대상이 된다는 해석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을 2:4에서는 황충이 기병대로 전쟁을 치르는 군대로 묘사되고 있는데 을 2:6에 이르면 이들의 공격에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얼굴빛이 하얗게 된다고 묘사한다.²¹⁾ 황충의 공격이 사람들에게 공포를 유발하고 있다. 또한 을 2:18-20은 황충으로 인한 재앙으로부터의 복으로의 반전을 이방 군대를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내는 것과 유사한 상황으로 묘사하고 있다. 요한계시록 저자는 이러한 요엘서 자체 내의 상징의 발전을 근거로 요한계시록은 황충이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으로 사용한 것이 틀림없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단순히 구약 요엘서의 여러 가지 표현을 문맥과는 관련 없이 황충 재앙을 묘사하기 위해 마구잡이로 끌어다 사용하지 않으며, 오히려 요엘서의 문맥을 충분히 파악하며 앞뒤 문맥을 염두에 두고 요엘서의 황충 재앙을 요한계시록에서 사용하고 있음을 드러내준다.

20) Strazicich, 앞의 논문(2004), 532-534. 그는 요엘서와 요한계시록 사이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에 둘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의 주된 초점과 강조점은 불연속성(요엘서 본문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함)에 있다. 그는 그의 논의에서 계속해 resignificaton(새 의미부여) 혹은 to resignify(새 의미를 부여하다)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한다.

21) Nogalski, 앞의 논문(2003), 200.

다. 요엘서의 황충 재앙과 요한계시록의 황충 재앙

요엘서의 황충 재앙을 요한계시록 9장의 황충 재앙을 묘사하는데 사용한 요한의 의도는 무엇인가? 앞서 밝힌 대로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요엘서 1장과 2장에서 황충에 관한 생생한 묘사를 끌어다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9장의 다섯째 나팔재앙에서의 요엘서 사용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요엘서 1-2장의 문맥을 살필 필요가 있다. 율 1-2장의 문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여호와 의 날을 경고(율 1:2-2:11, 특히 1:15)하며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 오기를 촉구하는 내용(계2:12-17)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다섯째 나팔재앙의 황충 재앙을 통해 다가올 하나님의 최종적 심판을 미리 경고하며 동시에 회개를 촉구하려는 의도가 황충 재앙에 있음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최후심판에 대한 경고와 회개의 촉구라는 이 두 가지 주제가 요엘서 1-2장의 지배적인 주제이기 때문이다.²²⁾

요한계시록 저자는 다섯째 나팔재앙이 회개를 촉구하기 위한 의도로 행해지는 재앙이라는 점을 계 9:20에서 암시하고 있다. 저자는 여섯째 재앙의 결과를 언급하면서 재앙에 죽지 않은 남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고’(9:20, *ouvde. meteno,hsan evk tw/n eirgwn tw/n ceirw/n auvtw/n*, 921, *ouv meteno,hsan evk tw/n fo,nwn auvtw/n*) 계속해서 우상숭배의 상태에 빠져 있음을 말한다. 요한계시

22) Strazicich, 앞의 논문(2004), 533-534는 나팔 재앙에서 사용되는 요엘서 본문을 논의하기는 하지만, 요엘서 사용의 의도(why)를 파악하기 보다는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요엘서 본문을 사용하는 방식(how)에 더 논의의 초점을 맞춘다. 그는 요한계시록 저자가 요엘서 본문을 보편화(universalize)시켜 요엘서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이라는 내용을 가져와 온 세상에 대한 공격으로 변용시켰다고 주장한다.

록의 저자는 계 9:20-21에 두 번에 걸쳐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음을 반복해서 강조한다. 특히 20절에서 이 사람들이 경험한 재앙을 언급하면서 이 재앙들(evn tai/j plhgai/j tau,taij)이라는 복수형을 사용한다. 이 복수형 재앙들은 계 9:20에서 언급되는 재앙이 단지 여섯째 나팔재앙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앞의 첫째부터 다섯째 나팔재앙까지의 모든 재앙들을 가리키며, 이 재앙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를 하도록 의도된 것임을 보여준다.²³⁾ 그러나 이 재앙들의 결과로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이 행해 오고 있는 우상숭배를 지속하도록 마음을 완악하게 되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요한계시록 저자의 요엘서 사용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욥 2:12-17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가 없을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하게 될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한다(욥 2:1-11). 여호와와의 날은 어둡고 캄캄한 날(욥 2:2)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날이 아니라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 받는 일(욥 2:6, 13)이며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롭게 했던 이방인들이 심판받는 날(욥 4:13=한글성경 3:13)이라고 엄중히 요엘서는 경고한다. 따라서 요엘서 본문을 사용하는 다섯째 나팔재앙을 통해 요한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계 9:4, 11)이 심판받는 것이 나팔재앙을 통해 드러난 하

23) Contra. Grand Osborne, *Revelation* (BECNT; Grand Rapids: Eerdmans, 2002), 385. Osborne은 계 9:20에 언급된 “재앙들”이 18절에 언급된 세 재앙, 즉 불, 연기, 유황이라고 해석한다. 그가 근거로 드는 것은 재앙이라는 단어가 18절과 20절에만 사용되기 때문이고, 첫째부터 다섯째 나팔 재앙까지는 이 단어가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이다. 하지만, 20절의 재앙들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계 8:11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내용과도 관련이 있으며, 20절의 재앙들은 18절의 재앙들을 포함해 첫째부터 여섯째 나팔 재앙을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Osborne의 해석은 설득력이 약하다.

나님의 경고와 회개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회개의 기회를 저버렸기 때문임을 암시한다.

물론 이 다섯째 나팔재앙의 직접적인 대상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계 9:4)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않은 자들이 회개할 수 있는가? 아니면 운명론적으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결코 회개할 능력이 없는 자들인가?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일관되게 ‘하늘에 거하는 자들’(tou.j evn tw/| ouvrnw/| skhnou/ntaj)이라고 불린다(12:12; 13:6). 반면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거의 일관되게 ‘땅에 거하는 자들’(oi` katoikou/ntej evpi. th/j gh/j)이라고 칭해진다(6:10; 8:13; 11:10; 13:10, 12, 14).²⁴⁾ 그리고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지만(계 6:10), 동시에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계 10:11; 14:6)이다. 이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해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은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한 결과 땅에 거하는 자들 중에 남은 자들(계 11:10, 13)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장면 즉, 회개하는 상황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계 11:13). 따라서 다섯째 나팔재앙을 통해 하나님은 땅에 거하는 자들 즉 짐승을 따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지만, 결국 이들은 회개의 기회를 거부하며 우상숭배의 길을 변함없이 견지하는 일을 하며 두려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것이다.²⁵⁾

24) Richard Bauckham, *The Climax of Prophecy* (New York: T&T Clark, 1993), 240. Osborne, 앞의 책(2002), 478.

25) Beale, 앞의 책(1999), 465-467은 나팔재앙의 일차적 목적은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나팔재앙이 출애굽 10재앙을 모델로 삼고 있는데, 출애굽의 재앙들은 바로와 애굽인들을 회개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 실제적인 심판이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하지만, 다섯째 나팔재앙이 출애굽기의 재앙이 아니라 요엘서의 황충재앙을 모델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Beale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화된다. 요엘서의 중요한 신학적

나팔재앙은 일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땅에 거하는 자들'이 심판의 경고 대상이지만, 동시에 교회 안에 있으며 신앙을 타협하는 자들인 니골라당을 겨냥해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우선, 계 2-3장의 일곱 교회에 관한 내용은 결론부가 회개의 촉구로 끝나고 있다(계 2:5, 16, 21, 22; 3:3, 19). 따라서 회개의 촉구를 다루고 있는 요엘서 2-3장의 본문을 암시하고 있는 다섯째 나팔재앙과 이 재앙을 포함한 모든 나팔재앙들의 의도 또한 교회 안에서 신앙을 타협하며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는 자들을 염두에 두고 있음이 분명하다. 사실 계 2-3장을 제외하고는 교회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은 계 4-16장까지에 등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교회에 관한 언급은 직접적인 방식이 아니라 상징적인 방식(14만 4천명, 셀 수 없는 많은 무리, 두 증인, 여자의 후손)으로 이 단락(계 4-16장)에 등장하고 있다. 동시에 교회 내부에서 신앙을 타협하며 이세벨과 발람으로 상징되는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수용하면서 로마 황제숭배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또한 요한계시록 4-16장에 등장한다고 볼 수 있다. 요한계시록 4-22장에 반복해 등장하는 교회를 향한 권면의 말씀들(13:9-10; 14:12; 16:15; 18:4)은 4-22장의 내용이 한편으로는 신실한 성도,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신앙을 타협하고 있는 자들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4-16장에 암시되어 있다는 주장은 요한계시록 저자가 다섯째 나팔재앙에서 요엘서 본문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다시 한 번 입증된다.²⁶⁾ 요한계시록은 인류의 역사의 전개과정을 미래주의적 관점에서 제시하는 것이 1차 목표가 아니다. 오히려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상

주제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회개의 촉구이기 때문이다.

26) Jauhiainen, 앞의 논문(2009), 164는 나팔재앙에서 요엘서 사용과 관련해 회개의 주제와의 연관성을 너무나 간략하게 설명하고 지나간다.

정하는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당면한 신앙의 타협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한편으로는 신실하게 신앙을 지키는 자들을 계속적으로 격려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 안에 머무르면서 신앙을 타협하고 있는 자들에게 임할 두려운 심판을 경고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4-16장의 중요한 1차적 목표이다. 이러한 신학적 의도를 잘 드러내는 것이 요한계시록 저자의 요엘서 사용이다.

3. 곡물수확과 포도송이 추수(계 14:14-20)

가. 포도송이 추수(계 14:17-20)

계 14:14-20에는 두 종류의 추수 상징이 등장한다. 14-16절에는 구름위에 앉은 이가 예리한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곡식을 거두는 장면이고, 17-20절은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들여 큰 포도주 틀에 던져 포도를 밟아 짜는 장면으로 되어 있다. 곡식추수(14-16)와 포도 추수(17-20)는 한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두 가지 서로 다른 상징인가? 보캄(Richard Bauckham)같은 학자는 두 종류의 추수 이미지를 각기 달리 해석하는데, 곡식 추수는 긍정적인 상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을 위해 추수하는 것이라 보는 반면, 후자인 포도 추수는 부정적인 의미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한다고 해석한다.²⁷⁾ 이와 유사하게 야우히아이넨은 곡식 추수의 이미지를 근접문맥인 계 14:4와 관련지어 구원의 상징으로 곡식추수의 의미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다.²⁸⁾ 반면에 비일(G. K. Beale)은 곡식추수의 이미지와 포도추수의 이미지는 상반되는 두 종류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고 주장한다.²⁹⁾ 이와는

27) Bauckham, 앞의 책(2003), 290.

28) Jauhiainen, 앞의 논문(2009), 168.

달리 오스본(Grand Osborne)은 전자인 곡물추수의 상장을 구원받을 자들에 대한 자비의 심판이라고 본다.³⁰⁾ 이들과 달리 스트라찌시크는 곡식추수의 상장을 부정적거나 긍정적인 상장이 아니라 중립적인 의미로 의인의 구원과 악인의 심판을 동시에 포함하고 아우르는 종합적인 이미지라고 해석한다. 그리고 나중에 언급되는 포도주를 이미지(계 14:17-20)가 악인의 심판이 설명되는 것이 포도주 틀을 밟는 이미지라고 주장한다.³¹⁾

요한계시록에서의 요엘서 사용이라는 관점으로 계 14:14-20을 분석해 보면, 계 14:17-20까지에 등장하는 포도 수확 이미지가 욥 4:13(한글 3:13)에 근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욥 4:13 evxapostei,late dre,pana o[ti pare,sthken tru,ghtoj eivsporeu,esqe patei/te dio,ti plh,rhj h` lhno,j u` perekcei/tai ta. u` polh,nia o[ti peplh,quntai ta. kaka. auvtw/n

계 14:18 kai. ai:lloj a:ggeloi fievxh/lqenD evk tou/ qusiasthri,ou Io`D e:cwn evxousi,an evpi. tou/ puro,j(kai. evfw,nhsen fwnh/| mega,lh| tw/| e:conti to. dre,panon to. ovxu. le,gwn\ pe,myon sou to. dre,panon to. ovxu. kai. tru,ghson tou,j bo,truaj th/j avmpe,lou th/j gh/j(o[ti h:kmasan ai` stafulai. auvth/jÅ

두 구절을 비교해 보면 낫(dre,panon)이라는 단어가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포도 수확이라는 유사한 개념이 두 구절 모두에서 발견된다. 더 나아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유사 어근

29) Beale, 앞의 책(1999), 770-779.

30) Osborne, 앞의 책(2002), 550-553.

31) Strazicich, 앞의 논문(2009), 545.

단어인 명사 tru,ghtoj(포도수확/혹은 곡물수확)와 동사 tru,ghson(수확하라)이 사용되고 있다. 요엘서와 요한계시록 이 두 본문은 공통적으로 포도를 수확하여 포도주 틀에서 포도를 밟는 내용이다. 욥 4:13의 히브리어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는데, 곡물추수, 포도주 틀 그리고 기름 짜는 틀의 3가지 비유를 사용하고 있다.³²⁾

Wqyvihe tG: ha'lm'-yKi Wdr> WaBo ry'ci_g' lv'b' yKi lG'm: Wxlvi 욥 4:13(HB)
 `~t'['r" hB'r: yKi ~ybiq'y>h;

욥 4:13(LXX) evxapostei,late dre,pana o[ti pare,sthken tru,ghtoj eivspo&reu,esqe patei/te dio,ti plh,rhj h` lhno,j u` perekcei/tai ta. u` polh,nia o[ti peplh,quntai ta. kaka. auytw/n

욥 4:13의 칠십인역 번역도 히브리어 본문을 거의 문자적으로 직역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볼 경우 욥 4:13의 칠십인역 본문도 히브리어 본문과 같이 세 가지 비유인 곡물추수의 비유, 포도주틀 비유 그리고 기름틀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사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칠십인역은 이 세 가지의 비유가 포도주 틀의 비유 하나로 볼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문장 번역 상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추수(tru,ghtoj)에 해당하는 단어는 문맥에 따라 곡물추수(harvest)가 아니라 포도추수(vintage)를 의미하기도 한다.³³⁾ 또한, 포도주틀(h` lhno,j)에 해당하는 단어는 포도주 틀을 의미하며, 기름틀(ta. u` polh,nia)에 해당하는 헬라어 또한 포도주 틀의 아랫부분에 놓은 물통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³⁴⁾ 이러한 해석적 가능성은 욥 4:13의 칠

32) Stuart, 앞의 책(1987), 269.

33) Liddell-Scott-Johnson(LSJ), *Greek Lexicon*, s.v. “tru,ghtoj”를 보라.

십인역 본문을 히브리어 본문과 비교하지 않고 단독으로 욥 4:13의 칠십인역 본문을 독립적으로 읽을 때 그 가능성은 매우 높아진다. 그리고 이러한 요엘서 본문의 해석적 가능성을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이용하고 있는 듯하다. 계 14:17-20에 의하면 천사가 곡물추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낫을 휘둘러 포도송이를 수확하고 난후 포도주 틀에 던져 넣어 밍히게 하기 때문이다. 즉 낫을 통한 포도추수 그리고 추수한 포도송이를 틀에서 밍는 행동의 진행단계가 욥 4:13과 동일한 진행단계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요한계시록 저자의 요엘서 사용은 요엘서를 자신의 신학적 목적을 위해 임의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요엘서 본문의 문맥과 본래 의미 그리고 그 본문의 해석적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요한계시록에 포도송이 추수 이미지를 끌어다 심판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 곡물추수(계 14:14-16)

다음으로 살펴보아야 할 대목은 곡물추수 이미지를 다루고 있는 계 14:14-16이다. 앞서 언급한 여러 학자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결국 곡물추수 이미지가 구약 요엘서에서 온 이미지인지 아닌지와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여러 학자들 가운데 비일만이 이 본문이 욥 4:13에 근거하고 있다고 본다.³⁵⁾ 그는 이 주장에 대한 근거로 구약에서 곡물추수와 포도송이 추수의 이미지를 동시에 사용하는 본문은 요엘서뿐임을 제시한다.³⁶⁾ 그에 의하면 계 14:14-16의

34) BDAG는 u`polh,nion의 뜻을 “포도주를 밑에 놓여있는 물통”(a trough placed beneath the wine-press to hold the wine, wine trough, vat)이라고 설명한다.

35) Beale, 앞의 책(1999), 770-778, 특히 775.

36) Beale의 앞의 책(1999), 775. 이와 비슷하게 Beale·McDough, 앞의 논문

곡물추수 이미지와 계 14:17-20의 포도송이 추수 이미지는 모두 욥 4:13의 본문을 근거로 발전한 것이다. 하지만, 그의 주장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문자적 유사성이 욥 4:13과 계 14:14-16사이에 존재하지 않는다.

욥 4:13 evxapostei,late dre,pana o[ti pare,sthken tru,ghtoj eivsporeu,esqe patei/te dio,ti plh,rhj h` lhno,j u`perekcei/tai ta. u`polh,nia o[ti peplh,quntai ta. kaka. aurtw/n

계 14:14-16 kai. ei=don(kai. ivdou. nefe,lh leukh,(kai. evpi. th.n nefe,lhn kaqh,menon o[moion u`o.n avnqrw,pou(e:cwn evpi. th/j kefalh/j aurtou/ ste,fanon crusou/n kai. evn th/| ceiri. aurtou/ dre,panon ovxu,Å kai. a:lloj a:ggeloj evxh/lqen evk tou/ naou/ krazwn evn fwnh/| mega,lh| tw/| kaqh,me,nw| evpi. th/j nefe,lhj) pe,myon to. dre,pano,n sou kai. qe,rison(o[ti h=lqen h` w[ra qeri,sai(o[ti evxhra,nqh o` qerismo,j th/j gh/Å kai. e:balen o` kaqh,menoj evpi. th/j nefe,lhj to. dre,panon aurtou/ evpi. th.n gh/n kai. evqeri,sqh h` gh/Å

물론, 두 본문에는 낫(dre,panon)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만, 그 이상의 연결고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추수를 의미하는 단어가 욥 4:13에서는 tru,ghtoj인 반면 계 14:14-16에서는 qerismo,j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욥 4:13의 단어(tru,ghtoj)는 포도 추수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고, 계 14:14-16에서 추수(qerismo,j)에 해당하는 단어는 곡물추수를 뜻하는 단어이다. 둘째, 문맥상 곡물추수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 계 14:14-16과 포도송이 추수 상징을 사용하고 있는 계 14:17-20을 비교해 보면 내용상 하나의 상황이 아니다. 앞 단락의 경우 곡물을 추수하는 주체는 “구름위에 앉아 있으신 이”

(2007), 1133.

(16절)이며 또한 14절에 의하면 “인자와 같은 이”라고 심판의 주체가 암시된다. “인자와 같은 이”라는 표현은 계 1:13에 의하면 요한이 밧모 섬에서 주의 날에 환상가운데 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시다. 반면에 포도송이 추수 이미지를 사용하는 계 14:17-20은 심판의 주체는 예리한 낫을 든 자(18절)이며 이 주체는 19절에 의하면 천사(*o` aiggeloi*)이다. 또한, 이미 17절에서 이 주체가 천사임을 명시하고 있다. 심판의 주체가 앞 단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뒷 단락에서는 천사로 이 차이점은 분명히 곡물추수와 포도송이 추수를 한 사건이나 상황으로 볼 수 없음을 암시하고 있다. 따라서 곡물추수가 욥 4:13에 근거하고 있다는 비일의 주장은 재고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계 14:14-16은 욥 4:13의 본문을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곡물추수의 이미지는 계 14장의 문맥에서 그 해석의 빛을 발견할 수 있다. 요한계시록 14장의 십사만 사천 명은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은 처음 열매(*avparch*,)이다(계 14:4). 이 처음 열매라는 단어는 인자 같은 이가 예리한 낫을 휘둘러 거두어들이는 곡물을 연상시킨다(14:15). 곡물 추수를 하는 이유는 곡물이 모두 다 익었기 때문이다(계 14:15). 따라서 계 14:14-16의 곡물추수 이미지는 첫 열매인 14만 4천명이 상징하고 대표하는 모든 구원받을 자들을 다 모으는 구원의 성격을 가진 추수가 이 단락(계 14:14-16)에서 말하는 곡물추수라고 볼 수 있다.³⁷⁾

요약하면, 요한은 세상 끝 날에 있을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설명하기 위해 곡물추수 상징과 포도송이 추수 상징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포도송이 추수를 다루고 있는 계 14:17-18의 단락에서

37) Bauckham, 앞의 책(1993), 289-296. 비슷하게 M. Eugene Boring, *Revelation* (Louisville: John Knox Press, 1989), 171.

을 4:13의 본문을 사용하며 심판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

다. 여호사밧 골짜기 심판과 마지막 추수

을 4:13의 포도송이 추수 이미지를 사용하는 요한계시록 저자의 의도는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14장과 요엘서 4장의 문맥을 비교해 보면 저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계 14:17-20에 사용되고 있는 을 4:13의 문맥은 여호와와 날에 하나님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인 만국을 모두 모아 심판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과 만국 민족들의 전쟁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다. 하나님이 만국 민족들을 여호사밧 골짜기로 불러 모으시는데 그 목적이 전쟁을 위해서이다(을 4:9). 그리고 동시에 열국과 싸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장소로 모여드는데, 을 4:11의 히브리어 본문은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 주의 용사들(을 4:11)이라고 칭한다.³⁸⁾ 반면에 칠십인역은 하나님이 직접 사방 민족과 싸워 이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한다.

ˆ^yr<ABG hwly> tñ>ti hM' WBqñw> byShi ~yAGi-k Wāow" WWW **을 4:11(HB)**

을 4:11(LXX) sunaqroi,zesqe kai. eivsporeu,esqe panta ta. e;qnh kuklo,qen kai. suna,cqh̄te evkei/ o` prau>j e:st̄w machth,j

을 4:11의 히브리어 본문(HB)과 헬라어 본문(LXX) 사이의 차이점은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용사들과 함께 민족들과 싸우는 전쟁을 하신다는데 있는 반면, 칠십인역의 강조는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러 나오는 모든 민족들 중에서 약한 자들도 자신들

38) 참고 Stuart, 앞의 책(1987), 265.

을 힘이 강한 자라고 여기며(o` prau>j e:stw machth,j) 하나님을 대적하러 전쟁터에 나오게 하라는 데 있다. 히브리어 본문이든 칠십인역 본문이든 전쟁을 통해 하나님이 결국 사방 민족을 심판하신다는 데 공통점이 있다.

의미심장한 것은 계 14장의 문맥이 전쟁모티브가 사용되는 단락이라는 점이다. 계 14장은 계 12장에서 시작하는 한편으로는 붉은 용(12장),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13:1-10),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13:11-18) 그리고 이들을 추종하는 무리와 다른 한편으로는 십사만 사천 명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전쟁을 다루는 문맥에 위치해 있다. 계 12:17에서 이미 붉은 용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서 있다는 전쟁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 이 전쟁 모티브는 계 13:4에서 한 번 더 붉은 용과 누가 싸워 ‘이길’ 수 있는가라는 질문의 형식을 통해 반복된다. 이 전쟁 모티브는 계 14장에 이르면 14만 4천명의 등장으로 더 분명해 진다. 십사만 사천 명의 정체는 계 7장에서 암시되는데 인구조사의 형태를 통해 이스라엘 12지파에서 14만 4천명이 나오는 것으로 제시된다. 보감은 이 인구조사의 형태가 구약시대에 전쟁을 하기 위한 군사력으로서의 성인남성들을 수를 파악하는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³⁹⁾ 14만 4천명이 군대라는 점은 이들에 대한 설명 가운데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계 14:4)이라는 대목에 이르러 더 강화된다. 보감의 주장대로 구약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거룩한 전쟁을 치루기 위해서 정결 준수가 요구되었다. 성과 관련된 정결법 준수가 성전(holy war)을 치루는 자들이 준수해야할 규정이었다.⁴⁰⁾ 따라서

39) Richard Bauckham, *The Theology of The Book of Revelation* (Cambridge: CUP, 1993), 77

40) 앞의 책, 78.

십사만 사천 명은 명백하게 전쟁에 싸우러 나가는 군대이다. 또한 요한계시록 자체의 문맥을 놓고 보더라도 14만 4천명은 일종의 군대이다. 계 19:14에서 백마를 탄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자들을 “하늘에 있는 군대들”(ta. strateu, mata Îta.Đ evn tw/| ouvrnw/|)이라고 부른다.⁴¹⁾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고’ 있는 장면은 어린양을 뒤따르는 14만 4천명을 연상시킨다(계 14:4). 다시 말해 14만 4천명은 하늘에 속한 군대들이다. 율 4:13이 사용되고 있는 계 14:17-20의 바로 뒷 단락에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유리 바다 가에 서 있는 장면이 등장한다(계 15:2). 그런데 이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이다. 전쟁용어인 ‘이기다’는 동사를 사용하며 전쟁 모티브로 이들이 소개되고 있는 것이다. 전쟁 모티브가 지배적인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율 4:13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앞서 설명했듯이 요엘서 4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던 사방민족들이 여호사밧 골짜기에 전쟁을 위해 모여들지만 이들은 결국 하나님에게 패해서 심판을 맞이한다. 따라서 율 4:13을 계 14:17-20에서 사용하는 요한계시록 저자의 의도가 분명해 진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마지막 운명은 구약 요엘서에 나오는 여호와와 날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자기의 운명을 내다보지 못하고 패배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군대들의 운명과 같은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물론 요엘서에서는 하나님이 사방 민족들을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하시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을 밟는 이의 정체가 금방 제시되고 있지는 않다. 단지 수동태 형태로 성 밖에서 포도주 틀이 밟힌다(evpath,qh

41) Beale, 앞의 책(1999), 960. 그는 계 19:14를 17:14와 연관시켜 하늘의 군대를 성도라고 본다.

h` lhno.j)고만 언급된다. 그러나 이 포도주 틀을 밟는 이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계 19:15).

요약하면, 계 14:17-20의 최후심판의 문맥에서 욥 4:13의 포도송이 추수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 요엘서 4장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사방 민족들이 여호사밧 골짜기에 하나님과 전쟁을 하기 위해 모여들지만 그 전쟁의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으며 패배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어리석은 자들임을 보여준다. 이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계 14:17-20은 요엘서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이미 패배라는 결과가 정해진 전쟁을 위해 소집된다는 주제와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피를 흘린 것에 대해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심판(욥 4:19-21)라는 주제를 가져다 사용하고 있다.

4. 여섯째 대접 재앙(계 16:14)

가. 요엘서와 여섯째 대접재앙

대접재앙은 나팔재앙과 마찬가지로 출애굽의 10재앙을 모델로 삼고 있다. 그러나 여섯째 대접재앙은 출애굽재앙의 개구리 재앙과 더불어 요엘서 3장에 나오는 여호와와 큰 날 본문과 요엘서 4장에 등장하는 여호사밧 골짜기 전쟁의 본문을 가져다 사용하고 있다.⁴²⁾ 첫째, 여호와와 큰 날에 관한 문자적 유사성을 두 본문 모두 가지

42) Beale·McDonough, 앞의 논문(2007), 1136. 이들은 계 16:14에서 본인이 욥 3:4가 사용된다는 주장과는 달리 여러 구약본문들인 출 8:3-4, 시 104:30 (LXX=105:30 ET), 슥 12-14, 슥 3 그리고 욥 2:11과 욥 2:31(=욥 3:4, LXX)등이 계 16:14의 구약적 배경이라고 소개한다. 반면, 요한계시록에서 요엘서를 비교적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Jauhainen (앞의 논문, 2009)과 Strazicich(앞의 논문, 2004)는 둘 다 요한계시록의 이 단락에서 요엘서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논의조차 하지 않는다.

고 있다.

을 3:4 o` h[lloj metastrafh,setai eivj sko,toj kai. h` selh,nh eivj ai-ma pri.n evlqei/n h`me,ran kuri,ou th.n mega,lhn kai. evpifanh/

계 16:14 eivsi.n gar pneu,mata daimoni,wn poiou/hta shmei/a(a] evkporeu,etai evpi. tou.j basilei/j th/j oivkoume,nhj o[lhj sunagagei/n auvtou.j eivj to.n po,lemon th/j h`me,raj th/j mega,lhj tou/ qeou/ tou/ pantokra,torojÀ

을 3:4에서는 하나님이 구원과 심판을 위해 이스라엘의 역사에 최종적으로 개입하시는 날을 ‘여호와와 그의 큰 날’이라고 칭한다. 요한 계시록 16장의 여섯째 대접재앙의 내용은 개구리 같은 세 더러운 영들이 이적을 행하며 세상 왕들을 미혹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게 하는 것인데, 이 전쟁은 ‘하나님의 큰 날’에 일어날 전쟁이다. ‘주의 큰 날’(h`me,ran kuri,ou th.n mega,lhn)과 ‘하나님의 큰 날’(th/j h`me,raj th/j mega,lhj tou/ qeou/)은 문자적으로 비슷하다.

둘째, 최후심판의 날에 전쟁을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상황이 계 16:14와 을 4:9의 내용과 개념적으로 매우 흡사하다. 을 4:9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방의 민족들이 용사와 병사들을 다 소집해 전쟁을 준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흡사하게 계 16:4 또한 미혹된 왕들이 최후 전쟁을 위해 소집되고 있다.

을 4:9 khru,xate tau/ta evn toi/j e;qnesin a`gia,sate po,lemon evxegei,rate tou.j machta,j prosaga,gete kai. avnabai,nete pa,ntej a:ndrej polemistai,

계 16:14 eivsi.n gar pneu,mata daimoni,wn poiou/hta shmei/a(a] evkporeu,etai

evpi. tou.j basilei/j th/j oivkoume,nhj o[lhj sunagei/n auvtou.j eivj to.n
po,lemon th/j h`me,raj th/j mega,lhj tou/ qeou/ tou/ pantokra,torojÅ

전쟁을 가리키는 단어인 po,lemon이 두 본문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요엘서의 경우 이방인들이 여호사밧 골짜기에 전쟁을 위해 모여드는데 이들은 심판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에 의해 패배하고 최후 심판을 맞이하게 된다.

셋째로, 두 본문은 주제 상 매우 유사하다. 요엘서의 본문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회개의 초청에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을 2:12-13).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의 대접재앙도 요엘서의 이 회개의 주제를 반영하고 있다. 대접 재앙 중 넷째 재앙과 다섯째 재앙을 설명하는 두 단락에서 두 번에 걸쳐 재앙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음’에 대해 언급한다(계 16:9, 10). 결국 나팔재앙도 회개를 촉구하기 위한 기회를 주기 위한 의도의 재앙임을 암시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받는 자들이 심판받는 이유가 재앙들을 통한 회개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완악하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멸망의 이유를 제시하려는 의도의 재앙임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논의를 요약하면, (1) “여호와/주의 큰 날”이라는 단어, (2) 전쟁을 위해 사람을 소집한다는 개념, 그리고 (3) 문맥상 회개의 주제가 등장한다는 근거를 바탕으로 계 16장의 여섯째 나팔재앙에서 요엘서 3-4장의 본문이 사용되고 있다고 논지를 펼쳐왔다. 물론 “여호와와/의 큰 날”이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요엘서에만 등장하는 것은 아니다. 요엘서와 비슷한 종말론적 문맥에서 습 1:14와 말 4:5이 ‘여호와와/의 큰 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또한 종말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사람들을 모아 전쟁을 일으키며, 이에 대항해 하나님이 이들과 전쟁하시는 사상은

스가랴 14장에서도 발견된다(슥 14:1, 2, 8). 그러나 앞서 논증했듯이 ‘여호와와 그의 큰 날’이라는 표현과 종말에 있을 전쟁을 위해 사람들이 모인다는 두 개념이 동시에 근접문맥에서 사용되는 본문은 구약에서 유일하게 요엘서뿐이다.

나. 여호와와 그의 큰 날과 전쟁 소집

그렇다면 여섯째 나팔재앙에서 요한계시록 저자가 요엘서 3-4장을 사용하는 의도는 무엇인가? 요한은 계 16:14에 제시된 여호와와 그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의 성격을 요엘서의 본문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 같다. 요엘서에서 열방들이 모여 하나님과 더불어 전쟁하려고 모이는 싸움은 이들이 하나님과 대등해 하나님을 이길 힘이 있음을 보여주는 전쟁이 아니다. 이 전쟁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기 위해서 벌이는 전쟁이다. 싸우기도 전에 패배가 결론으로 내려진 전쟁이다. 더구나 마지막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 사람을 소집하는 개념은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반복되어 등장한다(계 19:19; 20:8). 따라서 종말에 있을 큰 전쟁을 언급하는 문맥인 계 16:14에서 요엘서 4장의 여호사밧 골짜기에서의 전쟁 본문을 사용해 요한계시록 저자는 이 전쟁이 성도들이 두려워해야 할 전쟁이 아니라는 점과,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적들을 철저히 패배시키실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어 신앙을 끝까지 견지하도록 권면하는 의도가 있다.

동시에 앞에서 논증했듯이 계 16:14에서는 요엘서 4장뿐만 아니라, 욥 3:4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주목해야 한다. 욥 3:4의 바로 다음 구절인 5절에서 요엘서는 여호와와 그의 크고 두려운 날이 되기 전에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다고 설명한다. 요엘서 문맥상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는’(kai. e;stai pa/j olj a'n

evpikale,shtai to. o:noma kuri,ou swqh,setai) 행동은 욥 2:12-17에서 설명되는 애통함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를 의미한다.⁴³⁾ 또한,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는 자들만이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될 것이라고 요엘서는 설명한다(욥 3:5; 4:16-21).

회개의 촉구와 신실한 자들에 대한 격려의 내용이 요한이 요엘서 3-4장을 여섯째 나팔재앙을 통해 말하려고 한 의도였다는 점은 여섯째 재앙을 설명하는 단락의 마지막 구절인 계 16:15가 또한 권면의 내용으로 이루어 졌음에 의해 확실하게 뒷받침된다. 15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갑작스러운 재림을 말한 후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을 향해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맨 몸으로 다니지 않는 자들을 복이 있다고 말한다. 요한계시록 저자는 로마황제 숭배와 이를 통한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려는 신앙의 타협이라는 유혹에 빠진 자들에게는 회개를 촉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끝까지 믿음을 견지하는 자들은 앞으로 다가 올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 자기 옷을 지키는 영적 긴장감을 늦추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다.⁴⁴⁾ 회개의 촉구 그리고 회개의 기회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임할 변경할 수 없는 하나님의 최후심판이라는 요엘서의 주제가 여섯째 나팔재앙에서 요한이 요엘서 본문을 통해 암시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이다.

III. 결 론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요한계시록에서 요엘서는 인 재앙(계 6), 나팔재앙(계 9) 그리고 대접재앙(계 16)에 골고루 분포되어 사용되고 있다. 또한 인 재앙과 나팔재앙의 막간에 해당하는 계 14

43) Stuart, 앞의 책(1987), 261.

44) Osborne, 앞의 책(2002), 593-594. 그는 계 16:15의 경고와 권면의 말을 일곱 교회, 특히 사데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과 관련짓는다.

장에서도 포도수확 이미지와 더불어 요엘서가 사용되고 있다. 요한 계시록에서 사용되고 있는 요엘서의 본문들은 (1) 황충 재앙을 묘사하는 대목 (2) 여호와와 그의 큰 날 그리고 이 날과 관련된 우주적 대 혼돈에 관한 구절 (3) 여호사밧 골짜기로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대목 등이다. 또한 요한계시록에서 요엘서가 사용될 때는 단순히 위에서 언급한 몇 가지 단어나 표현만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암시하고 있는 구절이 포함된 더 넓은 단락의 의미를 끌어다 사용하고 있다. 또한 스트라찌시크의 주장과는 다르게 요한 계시록의 저자는 요한계시록에서 요엘서를 사용하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며 요한계시록의 상황에 맞게 완전히 변용하는 것이 아니라, 요엘서의 문맥과 원래 의미를 충분히 고려하며 요엘서의 주제들을 가져다 사용하고 있음이 분명해졌다.

특히나 요엘서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날을 피하기 위해 사람들이 보여야 할 반응으로서의 하나님께로 돌아옴이라는 회개의 주제가 요한계시록의 요엘서 사용단락들에 암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스트라찌시크와 야우히아이넨은 그들의 연구에서 요엘서의 이 주제의 중요성을 충분히 관찰해 내지 못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요엘서 본문을 사용하는 본문들의 앞뒤로 분명하게 회개의 주제가 반복적으로 대두되면서 재앙들이 회개를 촉구하는 성격을 가진 재앙임을 보여주었다. 동시에 요엘서의 주요 주제인 회개의 촉구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와 회개의 기회를 거부한 자들에게 임하는 여호사밧 골짜기에서의 심판에 대한 주제가 요엘서 본문의 암시적 사용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접수일: 2011년 8월 15일; 심사완료일: 2011년 9월 11일; 게재확정일: 2011년 9월 19일)

참고 문헌

- 박두환. “일곱 나팔 재앙의 의미(계 8:2-11-19).” 『신약논단』 17/4 (2010, 겨울), 1015-1014.
- 이필찬. 『요한계시록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서울: 성서유니온, 2003.
- _____. 『내가 속히 오리라』. 서울: 이레서원, 2006.
- 반 게메렌. 『예언서 연구』. 서울: 엠마오, 1993.
- Bauckham, Richard. *The Climax of Prophecy: Studies on the Book of Revelation*. Edinburgh: T&T Clark, 1993.
- _____. *The Theology of The Book of Revelation*. Cambridge: CUP, 1993.
- Beale, G. K. *The Book of Revelation*. NIGTC. Grand Rapids: Eerdmans, 1999.
- Beale, G. K. · McDonough, Sean M. “Revelation.” in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Use of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Baker, 2007, 1081-1161.
- Boring, M. Eugene. *Revelation*. Louisville: John Knox, 1989.
- Jauhiainen, “The Minor Prophets in Revelation.” in Menken, Maarten J. J. · Moyise, Steve. eds. *The Minor Prophets in the New Testament*. New York: T&T Clark, 2009.
- Kim, Kyoung-Shik. *God Will Judge Each One According to Works: Judgment According to Works and Psalm 62 in Early Judaism and the New Testament*. BZNW 178. Berlin: de Gruyter, 2010.
- Nogalski, James D. “The Day(s) of YHWH in the Book of the Twelve.” in Redditt, Paul L. · Schart, Aaron. eds. *Thematic*

- Threads in the Book of the Twelve*. BZAW 325; Berlin: de Gruyter, 2003.
- Osborne, Grant R. *Revelation*. BECNT. Grand Rapids: Baker, 2002.
- Paulien, Jon. "Criteria and the Assessment of Allusions to the Old Testament in the Book of Revelation." in Moyise, Steve. ed. *Studies in the Book of Revelation*. New York: T&T Clark, 2001.
- Pietersma, Albert · Wright, Benjamin J. *A New English Translation of the Septuagint*. New York: CUP, 2007.
- Strazicich, John. "Joel's Use of Scripture and the Scripture's Use of Joel: A Study in the Appropriation and Resignification of Scripture in Second Temple Judaism and Early Christianity." Ph.D.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4.
- Stuart, Douglas. *Hosea-Jonah*. WBC 31. Waco: Word, 1987.

■ Abstract

Joel in the Book of Revelation

Kyoung-Shik Kim

(Westminster Graduate School of Theology)

This article looks into the use of Joel in the Book of Revelation. It has been widely recognized that the prophetic writings of the Old Testament such as Isaiah, Daniel, Ezekiel and Zechariah are used in the Book of Revelation. However, in spite of two studies (Strazicich's monograph and Jauhiainen's article) on the use of Joel in John's Apocalypse, a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examination of the same topic has not been carried out until now. This study aims to fill this gap by analyzing allusions to Joel in four passages in the Book of Revelation and also attempts to interact with Strazicich's argument that the author of Revelation resignifies Joel's texts, which accordingly highlights the sharp discontinuity between Joel and John's Apocalypse.

Our examination of the sixth seal passages (Rev 6:12-17) lead us to argue that Rev. 6:12 uses Joel 3:4 and Rev. 6:17 also alludes to Joel 2:11 on the basis of a unique verbal similarity, unique word order and thematic parallel. Our analysis indicates that the reason why the author of Revelation uses Joel in the passages of the six seal (Rev. 6:12-17) is the theme of call to repentance dominated in Joel 2:12-17.

The next analysis of the use of Joel in Revelation is focused on Rev. 9:1-11 which deals with the fifth trumpet scene and we maintain that Joel 3:3-4 is used in Rev. 9:2 and several descriptions of the army of locusts in Joel (1:6; 2:4-5) along with the reference to trumpet in Joel 2 are employed in the fifth trumpet scene. On the basis of the presence of Joel in Rev. 9:1-11, our study argues that the themes of call to repentance and of warning about God's unreversible judgment as a result of rejection to repentance are the significant reason for John to use Joel's texts in the passage under examination. Our observation of Rev. 14:14-20 in connection with the vintage imagery claims that the theme of God's certain judgment of the unrepentant to vindicate the righteous in the final war at the Valley of Jehoshaphat is taken into account in the book of Revelation. Our final investigation into the use of Joel in Rev. 16:14 argues that the theme of God's unchangeable, final judgment of those who oppose both God and the righteous has in view.

Key Words

Joel in the Book of Revelation, call to repentance, the great day of YHWH. God's unreversible judgment